



## 구원의 계획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전 7:29).

그러나 사단은 거짓말을 이용하여 인류를 기만하는 일에 성공하였다. 인류는 속임을 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었고 불순종하여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었다(벧후 2:19).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인류가 장래에 대한 속절없음과 희망이 없는 상태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복음을 선언 하셨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요 1:3)는 인류를 위한 죽음을 제공하실 것이라는 선언이셨다. 그리스도는 죄의 삯을 지불하시기로 하셨으며 인류에게는 다시 한번 선택의 자유와 구원의 기회가 허락될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분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셨다(계 13:8). (벧전 1:18-20참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었다(창 3:15).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사단과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셔야 하였고 인류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그리고 사단에게는 그 의기만을 폭로하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였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갈 4:4, 5).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히 2:17).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히 2:14).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는 육신이 되셨으며(요 1:14), 율법 아래 나셨으며(갈 4:4), “저주를 받은 바” 되셨으며(갈 3:13), 모든 사람의 죄악이 그에게 담당되었으며(사 53:6),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고(고후 5:21),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는 우리들의 죄 값인 사망의 형벌을 지불하셨다. 이로써 믿음으로 그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용서와 영생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로마서 3:23; 베드로전서 2:24; 로마서 3:24, 25참조).

##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함

각 인간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필요가 절실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롬 3:23).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다.

- \*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출생함(시 51:5; 58:3; 사 48:8).
- \*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는 상태(엡 4:18).
- \* 마음이 심히 부패함(렘 17:9).
- \*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남(엡 2:1).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상태를 바꾸는 일이 불가능하며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범죄 하면서 살다가 소망 없이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므로 우리 인류가 불신으로 잃어버렸던 영생을 믿음으로 구원을 다시 얻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 의롭게 살아가는 능력과 힘을 주께로부터 얻는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요일 5:4).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요일 5:18).

## 거듭남에 필요한 회개와 고백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영혼들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경향이 반드시 요구된다. 죄에 대하여 핑계를 대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믿노라고 하나 마음에 숨겨둔 죄악과 회개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는 죄를 가진 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러나 회개와 자복도 죄의 형벌이 두려워서가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것이어야 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잠 28:13).

##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당부를 하셨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죄인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는 결심이 요구된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힘과 능력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요 5:14).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요 8:11).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의 결심과 노력과 의지만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며 유혹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 칭의(거듭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요 3:3-4).

우리는 선행이나 의로운 생애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거듭남으로 구원을 얻는다. 선행과 의로운 생애가 있어야 하나 그것은 구원의 공로가 아니요 거듭난 영혼에게 나타날 결과일 뿐이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이며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 받게 됨으로써이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겔 11:19-20).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 51:10).

진심으로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와 자복으로 죄를 용서받는 자들에게는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의 길이다.

## 성화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거듭난 영혼들이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는 삶을 성화라고 한다. 이것은 칭의와 별개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의를 나누어 받으면서 살아가는 생애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의를 나누어 주시고자 하신다.

그리스도인 생활을 시작할 때에만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생활 전 과정을 통해서 의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며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다.

구원은 궁극적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성화이며, 성화는 일생에 걸쳐 악과의 투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생애이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함이니라”(롬 6:1-4).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빌 1:6).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선교회 서울교회 (International Missionary Society SDA Reform Movement)

성경 가르침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www.thelastvoiceofGod.com/](http://www.thelastvoiceofGod.com/) / [www.imssdarm.net](http://www.imssdarm.net)  
02) 2207-1233, 010-2460-0070(서울), 010-4185-9928(평택)

